드라마 '마더' 속엔 각양각색 다양한 모성이 있다

이보영, 허율의 '진짜 엄마'로 거듭나는 과정서
다양한 유형의 엄마 만나며 모성의 의미 되새겨

드라마 '마더'가 탄탄한 대본과 배우들의 물샐 틈 없는 연기력, 수려한 영상미로 흡입력 높게 보는 이를 사로잡으며 곳곳에 각양각색의 모성을 그려내 폭풍과 같은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tvN 수목드라마 '마더'(연출 김철규/ 극본 정서경/ 제작 스튜디오드래곤)가 이보영이 상처 받은 허율의 '가짜 엄마'로 용기 있게 여정을 떠나며 허율의 '진짜 엄마'로 거듭나는 과정에서 고성희-이혜영-예수정 등 다양한 유형의 엄마를 만나게 하며 모성의 의미를 되새기게 해 화제를 더하고 있다.

1화부터 4화까지 다채로운 엄마들의 모습에서 절로 고개가 숙여지는 모성의 의미를 곱씹게 하며, '마더'가 따뜻한 감동의 드라마로 흡입력을 증명하고 있다.

'진짜 엄마' 자영(고성희 분)에게 학대를 받아 쓰레기 봉투에 버려진 혜나(허율 분)의 엄마가 되어 도피를 하게 된 수진(이보영 분)은 자신의 가족과 커리어 모든 것을 내던진 채 용감한 모성을 보여주고 있다. 자신의 어린 시절을 보는 듯한 혜나와의 만남 초반에는 애써 냉정을 유지하지만, 결국 혜나의 안전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어드벤처한 여정을 떠난다. 수진은 자신이 경찰에 잡히는 것보다 혜나의 학대 사실이 묻히지 않도록 증거를 확보해 학교 선생님에게 제보한다. 수진은 초반에는 혜나의 느린 걸음걸이를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차에서 잠든 아이를 어쩔 줄 몰라 하는 초보 엄마였지만, 각양각색의 엄마들을 만나며 점점 단단한 모성을 갖춰가고 있다.

수진과 더불어 과거에도 수진을 길러줬고 여전히 수진을 믿고 있는 톱 배우 영신(이혜영 분)과 고아원 정애원의 글라라 선생님(예수정 분)은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통념을 깬 길러준 모성을 보여준다.

글라라 선생님은 버림 받고 홀로 남겨진 아이들을 사랑으로 기른 진한 모성애의 엄마. 수진은 여섯 살 때 고아원 앞 벤치에 자전거 자물쇠로 몸이 묶여 버려진 채 정애원에서 자랐다. 수진이 여권 사기를 당하고 혜나와 함께 은신처로 정애원을 찾아갔을 때, 글라라 선생님은 치매에 걸린 상황임에도 두 사람을 가족으로 품어줬다.

한글 읽기가 서툰 혜나와 끝말잇기를 하기도 하고, 제 정신이 돌아올 때면 자신의 주변을 정리하며 애틋한 모습을 보여줬다. 혜나를 수진의 아이로 여기는 글라라 선생님은 수진에게 "엄마가 되는 건... 중병을 앓는 것과 같아. 모든 사람이 그 병을 이겨낼 수 있는 게 아니란다. 아주 아주 힘든 일이야. 하지만 넌 잘 해낼 거야"라며 모성에 대해 의미심장한 말을 해 준다. 글라라 선생님은 조카까지 업어 키웠지만, 조카는 정애원의 땅을 팔 생각만 한다. 아낌없는 사랑을 주고도 늘 원망의 대상이 되고, 그럼에도 웃음을 잃지 않는 '한없는 사랑'의 모성을 보여준다.

수진이 치료가 필요한 글라라 선생님 대신 10년 만에 찾아간 영신은 수진에게 자신과 10번 만나면 1,000만원을 준다며 제멋대로인 것처럼 보였지만 알고 보면 암 투병 사실을 숨기고 수진을 만나고자 치료를 받고 있었던 것. 아픈 사실을 숨기며 딸의 얼굴을 한 번 더 보려는 모성으로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안겼다. 영신은 수진의 방황을 알면서도 믿어주고 지지해주며 친구 같은 관계를 유지해가는 '든든한 믿음'의 모성을 보여주고 있다.

'마더'에는 자신의 사연과 고통보다 아이를 위해 희생하고 아낌없이 아이를 위하는 모성만 그려지지 않는다. 친딸을 방치하는 혜나의 친엄마 자영(고성희 분)은 '이기적인 모성'. 혜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동거남 설악과의 관계, 자신이 받고 싶은 사랑이 우선인 이기적인 엄마로 그려진다. 아이가 실종된 뒤 장례식에서 입을 검은색 옷이 없어 속상해하고, 경찰 조사 후 모닝커피를 마시는 위태로운 엄마다. 때로는 설악에게 아이를 때리지 말라고 빌기도 하고, 아이를 그리워하기도 하지만 자신을 합리화하는 이기적인 엄마다.

수진과 혜나가 도피 중 기차역에서 우연히 알게 된 라여사(서이숙 분) 역시 모성을 이용하는 무서운 할머니였다. 기차에서 아이를 살뜰히 보살피던 라여사는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한다며 "여기 여자들 봐. 사연 없는 사람 하나도 없지.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금방 알아봐. 서로 돕는 게 특별할 것도 없고. 안 그러면 우린 벌써 오래 전에 못 살았어"라고 말하지만, 불법 여권을 알선한다. 라여사가 돌보던 아기는 베트남 여자의 아기였고, 라여사는 그 아기를 팔아버리는 등 이기적이고도 무서운 모습으로 연약한 엄마들을 이용한다.

그런가 하면, 수진의 동생 이진(전혜진 분)은 전도유망한 피아니스트로서 삶을 버리고 쌍둥이 남매를 키우며 '완벽한 엄마'가 되고자 하는 욕심을 지녔다. 자신이 영신의 친딸임에도 수진에게 영신의 사랑이 밀린다고 생각하며 섭섭함을 갖고 있지만 그러기에 가장 행복하고 평범한 모성을 그리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또 한 사람의 엄마가 최근 등장했다. 혜나가 의지하기 시작한 이발소 할머니. 혼자 호텔에 있던 혜나가 청소를 하러 들어온 호텔 메이드를 피해 달려간 곳이 이발소였고, 수진이 아픈 혜나를 맡기기 시작한 곳도 이발소가 되어 버렸다. 이발소 할머니는 수진에게 "이런 말, 주제넘을지 모르지만... 밤에 혼자 있기엔 아직 어린아이 같아요"라며 걱정을 해 주고, 어느새 혜나를 자신의 집에 들여놓기 시작한다.

로드 무비를 방불케 하는 촘촘한 대본과 이보영, 이혜영 등 '믿고 보는 연기 천재들'의 구멍 없는 연기력, 바다와 새 등 자연이 주는 여유와 쫓고 쫓기는 긴박한 스릴러를 절묘하게 씨줄과 날줄처럼 구현하는 연출력으로 인해 '마더'는 물 흐르듯 보는 사람들을 빨아들인다.

자연스레 드라마를 따라가다 보면, 다양한 모습의 모성과 마주하게 되고, 과연 모성이란 친 엄마만 갖는 것인지에 물음표와 맞닥뜨리며 진정한 모성의 의미에 절로 감동과 여운이 남는다.

'으라차차 와이키키' 웃음 속 청춘의 짠한 자화상 그려

청춘. 만물이 푸른 봄철이라는 뜻이다. 흔히 인생에서 가장 싱그러운 시간이라고도 한다. 실상은 그렇지 않다. 취업난에 연애마저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아프니까 청춘이라고 말하는 사회에 강한 한 방을 날리는 드라마가 왔다. 바로 '으라차차 와이키키'가 그 주인공. 더 노력하라는 사회에 "우리도 열심히 했어요"라 반박하는 이 드라마가 시청자의 공감대를 자극했다.

5일 첫 방송된 JTBC 월화드라마 '으라차차 와이키키'(극본 김기호/ 연출 이창민)에서는 삶이 녹록지 않은 청춘들의 모습이 그려졌다. 세계 최고의 연출가, 배우, 작가를 각각 꿈꾸는 강동구(김정현 분), 이준기(이이경 분), 봉두식(손승원 분)은 영화 제작 비용을 벌기 위해 '와이키키'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높은 전기세와 수도세를 감당하지 못해 매달 적자 신세였다. 결국 42만 원의 수도세를 감당하지 못해 수도가 끊기고 말았다. 이 상황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는 봉두식의 말에 강동구는 "대출 이자는 눈덩이만큼 불어나는 상황에서 내가 너무 부정적이었네"라며 조소했다. 이들의 고군분투는 날로 높아져 가는 집세에 내 집 마련은 언감생심이라는 한국사회 청춘들의 모습과 겹쳐지면서 시청자의 공감을 샀다.

'와이키키' 게스트 하우스에 찾아온 손님은 바로 버려진 아기였다. 한윤아(정인선 분)가 딸 솔이를 게스트하우스에 놓고 간 것이다. 한윤아는 아이 아빠도 없이 딸 솔이를 홀로 키울 자신이 없었다. 이에 강동구, 이준기, 봉두식은 서투른 솜씨로 솔이를 돌봤다. 아기 기저귀조차 제대로 갈지 못하는 이들의 모습은 시청자의 웃음을 자아냈다. 곧 한윤아는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며 아이를 찾기 위해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왔고, 엉겁결에 그곳에 눌러앉게 됐다. 한윤아는 솔이를 품에 안고 연신 "엄마가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라고 말해 시청자를 짠하게 만들었다. '으라차차 와이키키'는 미혼모가 홀로 아이를 양육하는 과정을 현실적이고 코믹하게 그려냈다.

이런 혼란 속에서 강동구는 연애 또한 순탄치 않았다. 강동구 여자친구인 민수아(이주우 분)가 급작스럽게 이별을 통보한 것. 커플링을 빼서 돌려주는 민수아에게 강동구는 호기롭게 필요 없다며 내던졌다. 그러나 커플링이 18K였다는 사실과 밀린 수도세가 떠올랐다. 강동구는 결국 내동댕이친 커플링을 찾으러 갔고, 커플링을 금은방에 넘기는 순간 민수아와 마주쳤다. 사랑마저 마음대로 되지 않고, 자존심 또한 지키지 못한 강동구의 모습은 코믹했지만 한 편으론 안타까움을 불러일으켰다.

청춘의 현실적인 모습을 담아낸 '으라차차 와이키키'는 첫 회부터 반응이 뜨거웠다. 호평 속에 순탄한 출발을 알린 '으라차차 와이키키'가 청춘들의 진짜 모습을 담아내며, 위로가 되어줄 수 있을지 기대가 모인다.

정승환, 신곡 '눈사람' 4개차트 1위

겨울의 끝자락에서 가수 정승환의 신곡 '눈사람'이 차트 정상에 올랐다.

정승환은 6일에 발표한 '눈사람'으로 7일 오전 9시 기준 지니, 벅스, 소리바다, 올레뮤직 등 4개 차트에서 1위를 기록했다. 선공개곡만으로 뜨거운 인기를 모으고 있다. 19일에 발매를 앞둔 정규 1집 '그리고 봄'에도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승환은 레트로풍의 포크 발라드로 새로운 감성의 확장을 보여줬다. '눈사람'은 아이유가 작사에, 김제휘가 작곡에 참여해 동화적인 스토리텔링과 따뜻한 멜로디로 정승환의 이런한 감성에 불을 지폈다. 이에 '밤편지'로 작년 각종 시상식 대상을 휩쓴 바 있는 최강 음악 짝꿍이 정승환의 애절한 보컬과 만나 처음으로 선보이는 시너지에 리스너들이 긍정적인 화답을 내놓고 있다. 구절마다 가슴에 와 박히는 '꽃잎이 번지면 당신께도 새로운 봄이 오겠죠', '그대 반드시 행복해지세요'와 같은 따뜻한 당부의 이별인사가 애틋함을 더한다. 특히 조용히 편지를 읊조리는 듯 서정적인 분위기의 전반부에 비해 휘몰아치듯 격정적인 서사를 들려주는 후반부에서는 정승환 특유의 짙은 감성과 진성-가성을 오가는 보이스의 매력이 한껏 드러난다.

정승환은 선공개곡 '눈사람'을 비롯한 10트랙으로 정승환의 사계절처럼 다양한 표정과 매력을 담은 정규 1집 '그리고 봄'을 오는 19일에 발매하며, 오는 3월에는 동명의 단독콘서트를 연다.

"세계 7대 소름끼치는 장소" 곤지암 정신병원 영화화

'곤지암 정신병원'이 영화화됐다.

한국 공포 장르의 수작으로 꼽히는 영화 '기담'을 통해 탁월한 연출력과 미장센을 선보인 정범식 감독의 새로운 공포영화 '곤지암'은 3월 개봉을 확정 짓고 1차 포스터를 공개했다.

'곤지암'은 세계 7대 소름 끼치는 장소로 CNN에서 선정한 공포 체험의 성지 '곤지암 정신병원'에서 7인의 공포 체험단이 겪는 기이하고 섬뜩한 일을 그린 체험 공포 영화.

공개된 1차 포스터는 섬뜩함이 감도는 곤지암 정신병원의 외관과 함께 "가지 말라는 곳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라는 카피가 시선을 사로잡는다. 이렇게 보는 것만으로도 공포감에 휩싸이게 만드는 곤지암 정신병원은 1996년 폐원한 이래 현재까지도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흉가로 손꼽히는 곳이다.

3월 개봉 예정이다.

오늘의 운세 2018년 2월 8일 목요일 (음력 12월 23일)

▶쥐띠 한 번에 많은 것을 원하면 현재 가진 것도 잃는 화를 부른다. 시간을 아껴 성실한 태도를 보이라. 직장인은 작아도 성과는 얻으니 희미하던 앞날에 밝은 빛이 비치는 격이다. 진실한 마음을 갖고 열중하면 귀인이 돕는다. 용기를 가지라.

▶소띠 비록 마음에 품은 뜻은 크나 매사에 조급히 처신하면 헛수고만 한다. 차분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지혜롭게 대처하라. 애정은 자신감과 이해, 웃음으로 감싸주면 가정에 웃음꽃 피울 듯. 서비스, 요식업 종사자 침체에서 벗어날 수다.

▶호랑이띠 분주하기만 할 뿐 소득이 없다. 무슨 일이든 신중히 처리할 것. 과욕을 버리고 순리대로 분수를 지킴이 좋을 듯. 5, 7, 12월생 애정은 꽃이 피다 갑자기 지는 격임을 유념하고 상대를 마음껏 사랑해주라. ㅇ, ㅊ, ㅍ 성씨는 방해자가 따를 듯.

▶토끼띠 사랑한다는 말에 현혹되지 마라. 평생 후회하고 원망하면서 자신을 학대하는 일이 생길 것이다. 비가 내린 뒤 땅은 더욱 굳어지듯 시련을 이기고 용기를 잃지 말며 중심을 지키라. 더 큰 것을 위해 다져지는 이치라 생각할 것.

▶용띠 여린 마음에 눈물 젖으니 매사 불안함이 가중하는구나. 어려워도 참고 기다리면 언젠가 승리한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일이 곧 있을 듯. ㄱ, ㅂ, ㅊ 성씨 당장 생산적인 일이 없어도 토끼, 말, 개띠 귀인을 만나는 소득 있을 듯.

▶뱀띠 지나친 욕심을 버리고 감정을 억제하며 선의적 행동으로 처신하라. 모든 것을 혼자 다 할 수는 없다. 사람을 끝까지 믿고 대할 때 하는 일 순조로울 듯. ㅁ, ㅅ, ㅇ 성씨 마음도 행동도 분주하다. 이익도 많겠으나 지출도 많다. 억제할 것.

▶용띠 감당하기 어려운 짐을 지고 있으니 늘어나는 것은 한숨 뿐이구나. 집안사람들의 눈치만 살피지 말고 자신이 알아서 처리하라. 1, 7, 10월생 내 것을 남에게 빼앗기고 홀로 눈물 흘리고, 한숨짓는 격. 최대한 자신감을 찾으라.

▶양띠 새로운 각오로 시작한 일 부진하다 낙심 말라. 확고한 계획만 서 있다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 성공하려면 자존심이 상해도 굽힐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동쪽에서 좋은 소식 날아올 수. 4, 5, 6월생 붉은색이 길함을 알라.

▶원숭이띠 거짓과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는 법. 상대가 진실을 믿고 따르려는 마음 강하니 더는 실망하게 하지 않도록 자제하라. 금전과 사랑, 둘 다 중요하겠지만 금전으로 사랑을 살 수 없음을 알 것.

▶닭띠 무슨 일이든 임시변통하면 원망이 대단하니 확실한 계획을 갖고 임하라. 가족에게 상의도 없이 혼자 하는 일은 투기 행위다. 욕심을 내면 관재수 따르니 조심하라. 1, 7, 9월생 물 흐른다고 무조건 따르지 말라.

▶개띠 힘들고 어려운 길을 참고 견딜 때 소득이 생긴다. 나태한 모습은 신뢰감을 상실할 수 있으니 굳은 마음이 필요함을 알라. 1, 4, 7월생 망설이다 기회를 놓치는 일 없도록 하라. ㅁ, ㅅ, ㅊ 성씨 보증을 서지 말 것.

▶돼지띠 지금의 고난을 거울삼아 위기를 넘긴다면 서광이 비치겠다. 친지나 친구 등 주변에 힘이 될 자 많으니 자존심을 버리고 대처한다면 무난히 성공의 길로 접어든다. 2, 7, 10월생 적극성이 필요.